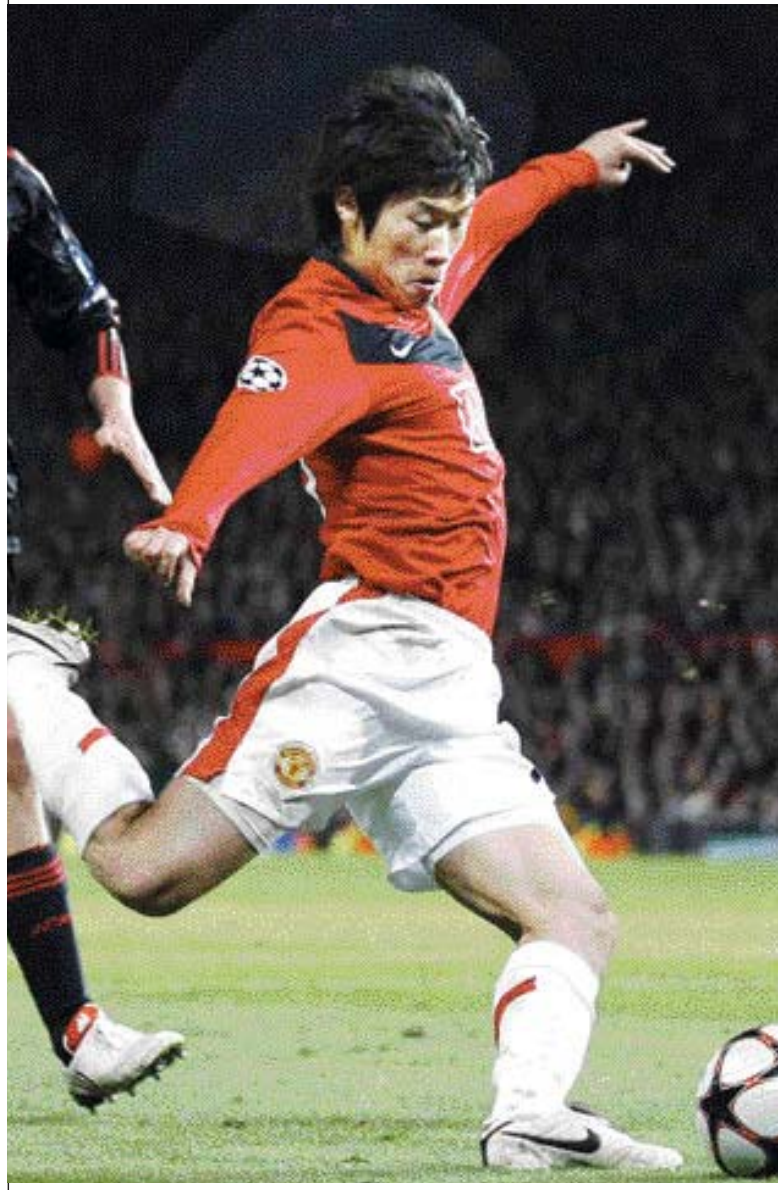


‘풀햄킬러’ 지성, 또 골맛 볼까



챔스리그 이어 EPL 연속골 기대

‘꿈의 무대’에서 득점포를 터트리려 거함을 격침한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연속골에 도전한다.

박지성은 14일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풀햄과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연속골을 노린다.

박지성은 AC밀란과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이번 주말 풀햄과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박지성은 지난달 17일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원정경기부터 최근 맨유가 치른 6경기에 모두 출전해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4경기에 선발 출전(2경기 풀타임)했고, 2경기에 교체 투입됐는데 맨유는 최근 6경기에서 5승1패의 성적을 거뒀다. 박지성은 지난달 1일 아스널과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원정경기(3-1 승)에서 시즌 마수걸이 골을 넣었고, 38일 만에 다시 골맛을 봤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첫 공격포인트를 올린 상대가 풀햄이고, 풀햄과 대결에서만 2골3도움을 기록 중

이다. 맨유는 20승3무6패(승점 63)로 선두지만 2점 차로 추격하는 2위 첼시(19승4무5패·승점 61)가 한 경기를 덜 치러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리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6골7도움)의 주인공인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은 13일 자정 홈 구장인 리복 스타디움에서 위건 애슬레틱과 맞붙는다. 볼턴의 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이청용이 1월27일 번리와 홈 경기(1-0 승) 이후 침묵한 득점포를 재가동하면 한국 선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도 새로 쓰게 된다. /연합뉴스

◇유럽파 주말 경기 일정(한국시간)

- ▲13일(토)=기성용 셀틱-킴나흐(21시15분·원정), 이청용 볼턴-위건(0시·홈)
- ▲14일(일)=차두리 프라이부르크-바이에른 뮌헨(02시30분·원정), 박지성 맨유-풀햄(밤 22시30분·홈)

종범·상현 ‘올해도 일낸다’

나란히 홈런포 가동... KIA, 히어로즈 4-2 제압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 이종범과 김상현이 화려한 홈런포를 터뜨렸다.

이종범은 1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시범경기에서 4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넥센의 선발투수 애드리안 번사이드의 몸쪽 공을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기는 대형 홈런포를 날렸다.

이날 홈런으로 시범경기 2호 홈런을 기록한 이종범은 시범경기에서 9타수 5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올시즌 대활약을 예고했다.

지난해 홈런왕(36개)·타점왕(127개)이었던 김상현은 1-0으로 앞선 4회말 1사1루에서 번사이드의 바깥쪽 높은 직구를 잡아당겨 좌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지난 11일 넥센과 경기에서 9회말 대타로 등장했던 김상현은 이날 3루수 겸 5번타자로 정상 출격, 첫 홈런을 터뜨리며 ‘거포본색’의 기치기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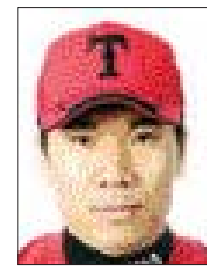
지난 6일 삼성과 경기에서 구원 등판해 2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던 로드리게스는 이날 최고시속 149km의 빠른 볼을 앞세운 힘있는 투구로 5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냈고 3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KIA는 홈런 2방과 선발투수 카르도 로드리게스의 후투에 힘입어 넥

센을 4-2로 제압했다. 대구에서는 최형우가 만루포를 뽑은 삼성이 LG를 9-2로 물리쳤다. 인천에서는 롯데가 SK를 2-1로 누르고 4연승의 휘파람을 불었으며, 대전서 한화는 두산에 8-4로 제압하고 마수걸이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진 기흉 수술... 선발진 빠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이대진(36) 투수가 폐에 발생한 기흉 증세로 수술받았다.

KIA는 12일 이대진이 전날 밤 식사 중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 지정병원에서 검진 결과 자발성 기흉 증상이

라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했다고 밝혔다.

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 탓에 갈비뼈 사이에 가스가 고이는 현상이다.

이대진은 일주일 가량 병원에 입원하고서 2~3주 동안 휴식을 취하고 점진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나 언제 그라운드에 복귀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드로그바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

‘검은 폭격기’ 디디에 드로그바(32·첼시·사진)가 ‘흑표범’ 사뮈엘 에토오(29·인테르 밀란)를 눌렀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공격수 드로그바는 12일(한국시간) 아프리카축구 구연맹(CAF)이 발표한 2009년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 영예를 안았다.



드로그바는 각축을 벌였던 카메룬 태생의 에토오와 첼시의 동료인 가나 출신의 미드필더 마이클 에시엔(28)을 따돌렸다.

드로그바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드로그바는 2008-2009시즌 정규리그 5골 4도움과 FA컵 3골, 유럽축구 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 칼링컵 1골 등 시즌 14골을 사냥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2주뒤 복귀할 듯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복귀가 기사사로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복귀전이 어느 대회가 될지 세계 골프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TPC소그래스 클럽하우스에서 자신이 일으켰던 각종 물의에 대해 사과했던 우즈는

최근 스윙코치 헨크 헤이나라 함께 집 근처 아일워스 골프장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어 뉴욕 포스트는 우즈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할 것이며 여론을 의식해 홍보의 귀재로 알려진 에리 플라셔 전 백악관 공보수석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측

▲강종백·홍순의씨 장남 경원군 승영순씨 사너 문 설양=13일(토)

오후 1시5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1층(춘추관)

무음

▲이윤권씨 별세 동호·동식·희숙·희옥·희영씨 부친상=발인 14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허공례씨 별세 김병호·춘호·장호·갑희·갑삼씨 모친상=발인 13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강운현(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씨 별세 재영·진영·필승씨 부친상=발인 13일(토)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5호 특실. 061-751-0538.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손순금님(여/79세)
 기/부: 김경수 / 장남: 김동철, 김영규 / 박순애
 장녀: 김희영 / 장남: 최기영 / 김재영
 장녀: 최민희 / 이종국

향년 81세
 발인: 03월 15일
 장지: 원덕장사

故 유종옥님(여/95세)
 기/부: 김경수 / 장남: 김동철, 김영규 / 박순애
 장녀: 김희영 / 장남: 최기영 / 김재영
 장녀: 최민희 / 이종국

향년 91세
 발인: 03월 14일
 장지: 원덕장사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치장 - 정감량 출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현대종합상조 전속모택 노주현

2010 제1회 나눔 콘서트

최현우

MAGIC CONCERT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0년 3월 13일(토)~14일(일)

주최 | 광주CBS 후원 | 금보통은행 | 문의전화 | 1400-8005